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하는 한편 34대 집행부가 펼쳐나갈 중점사업의 원만한 회향을 위한 중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앞줄 왼쪽부터 문화부장 정현스님, 재무부장 유승스님, 기획실장 주경스님, 총무부장 지현스님,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자성과생니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년회견

조계종이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발원하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성별·장애·종교·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으나 보수 기독교의 조직적인 반대와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사랑을 가르

“지금 위기는 소수세력 특권
헌법 정신 무력화가 원인”
특권·차별 없는 나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지원’ 천명

치는 종교의 근본정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사회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종단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헌 총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날 종단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화합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

하고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수처적주 입처개진,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진여(眞如)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발언을 연 뒤 “특권과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촛불민심을 통해 충분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이미 증명했고, 국가 위난의 상황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 염원을 바탕으로 특권과 차별이 없는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특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들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국가 위기는 소수 세력이 정치경제적으로 서로 결탁해 특권을 누리며 헌법 정신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종단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사회 화합을 위해 법 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운동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종교간 대화를 통해 입법과정의 장애를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사람의 고귀하고 천함은 혈통이나 신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가 결정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며, “조계종은

차별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의 손을 잡고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특정종교 집장이 국민 전체의 평등과 균형을 깨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담론 형성에도 노력해 헌법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현재 정치 체제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개헌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백년대계 분부’ 구성 등 중점사업들도 발표했다.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승려복지제도,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 등 34대 집행부 핵심 정책 과제들도 순조롭게 마무리해 나갈 것을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세월호 1000일... “진실 하루빨리 인양돼야”

조계종 사회노동위 성명 발표

조계종 총무원조합 추모 예불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맞은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조합, 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사 1000일을 기억하고 조속한 진상 규명과 선체 인양을 발원했다.

총무원조합(위원장 성만제)은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인 지난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세월호 1000일을 기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바라는 추모 예불을 진행했다.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단체 스님과 종무원 등 170여명은 이날 발원문을 통해

■ 조민기 ‘불교를 빛낸 장자이야기’ 10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희생자들이 모든 고통을 여의고 극락왕생하기를,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슬픔과 상실을 덜어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발원한다”며 “천일동안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세월호가 하루 속히 인양돼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담아 발원한다”고 기도했다. 이들은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함을 되새겨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재난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발원한다”며 “돈의 가치가 최고인 세상이 아니라 생명, 평화, 평등, 존중의 세상이 되길 기록하신 부처님께 간절히 바란다”고 발원했다.

같은 날 사회노동위(위원장 해웅스님)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과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성명을 통해 “10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인양도 되지 않았고 미수습자 9명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진실이 묻혀가고 있다”고 했다.

사회노동위는 “정부가 사고 원인을 제시했지만 정작 희생자 가족과 국민은 동의를 못하고 있고 진상을 규명할 세월호 특별 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비협조와 수사권 한계로 문을 닫았다”며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이 필수적인 선체 인양도 당초 약속한 2016년 7월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사회노동위는 무엇보다 정부가 세월호 문제에 있어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노동위는 “10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양 연기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관련자 문책은 고사하고 인양을 담당해왔던 세월호 인양추진

단장은 산하단체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등의 지부족을 보여줬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낱알이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

5000원 1계좌 동참불사

T.031-980-7892~3

국민 282401-04-222021(중앙승가대학교)

‘그대! 붓다로 다시 깨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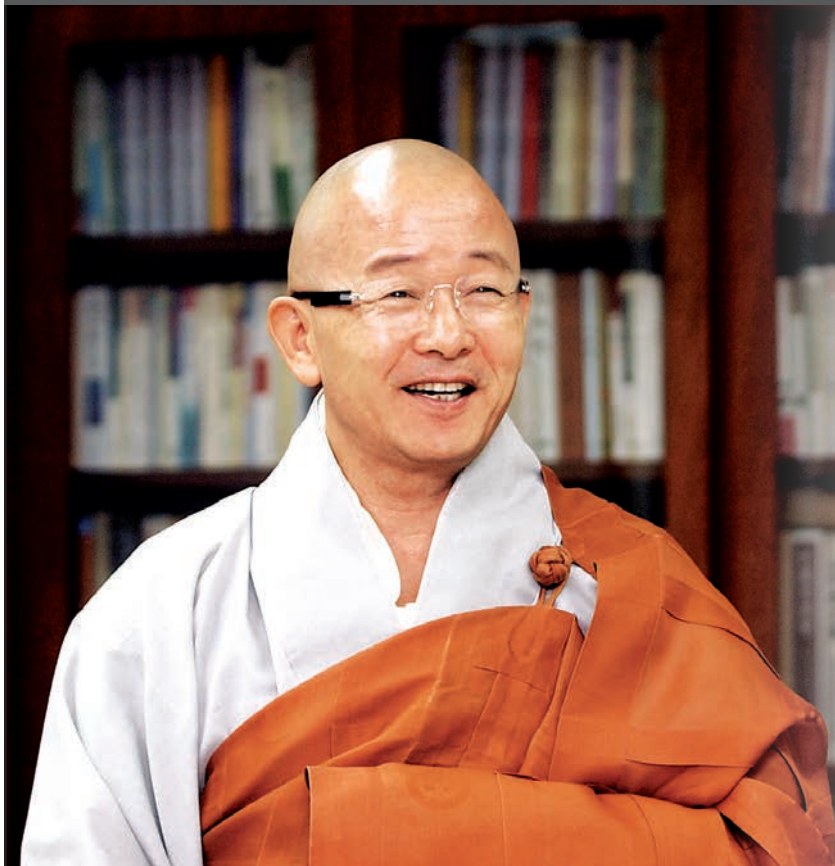
23일 해충스님과 구법여행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해충스님이 불교신문과 조계사불교대학총동문회가 공동 주관하는 53선지식 구법여행의 열다섯 번째 초청법사로 나선다. 해충스님은 오는 23일 오후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도량석 우는 정유의 새벽 그대! 붓다로 다시 깨어라’를 주제로 법문한다.

해충스님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부산불교사회복지정소년기관협의회회장 등 어린청소년포교와 불교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2006년 11월 제5대 포교원장으로 취임해 5년간 소임을 무탈하게 마치고 퇴임한 후에는 부산 감로사에 주석하며 수행 정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역화불사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도 맡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53선지식 구법여행 _ 열다섯번째



해충스님

-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역임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역임
- 대한불교조계종 제5대 포교원장 역임
- 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불교신문



불교대학총동문회

도량석 우는 정유의 새벽 그대! 붓다로 다시 깨어라

(부제 : 깨달음은 시작이다)

일시 _ 1. 23.(월) 저녁 7시

장소 _ 조계사 대웅전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등대로 보리심을 찾고자 53선지식을 찾았던 그 구도 여정의 참 뜻을 따라 현대사회 우리 불자와 국민에게 삶의 지혜와 희망을 찾는 구법여행을 떠납니다. 53선지식을 만나 그들에게 법을 묻고 배우며 보리심을 일으켜 보현행위를 발원했듯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명사들을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불교대표언론인 ‘불교신문’과 조계사불교대학총동문회가 우리 시대 선지식을 모시고 참진리를 찾는 구법여행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2017년 1월은 설연휴 관계로 1월 23일(월) 저녁 7시에 진행합니다. ※2월 24일(금) 설절스님

매월 넷째주 금요일 저녁 7시 조계사 법당에서 53선지식을 만나는 구법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10-4105-0869 (조계사불교대학총동문회 기획부장)